



낙오자를 위하여

장소 학생회관 1층 블루큐브

일시 2014년 5월 29일(목) 7pm / 30일(금) 7pm / 31일(토) 2pm, 7pm



{극 회장}



09 김현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도 극회장을 맡고 있는 09학번 김현우라고 합니다.

어느덧 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봄은 통상 시작을 말할 때 쓰이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나, 항상 시작이 참 중요하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기 마련이죠. 이번공연, 대학에 입학하여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많은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열정을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봄 정기공연 '낙오자를 위하여'. 송대극회의 2014년도 1학기 결과물입니다. 관객 여러분께 항상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조금 더 재미있는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여 나온 결과물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의 열정깊은 공연을 재미있게 봐주신다면 우리 송대극회원 모두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보람이 될 것입니다. 공연을 보시고 한 학기동안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극을 만들어준 극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공연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객 여러분께 이 공연을 보는 시간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더 공연을 봐주러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극 '낙오자를 위하여'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송대극회 재학생들과 항상 응원해주시는 졸업동문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기획}



10 오광규

14 김서우

기획_10 오광규

저는 기획보다 연출과 캐스트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떨결에? 이렇게 큰 역할을 맡아 버렸습니다.

맨 처음 기획은 라면만 잘 끓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으로 시작하여 큰 돈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남았습니다. 기획을 처음 하다 보니 정확한 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며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열심히만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획 일을 하면서 후회되는 것은 제대로 못했다는 것과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기획을 못했더라도 주위에 좋은 사람을 얻은 것이 행복하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기획_14 김서우

신입생이 부기획과 조명이라니! 처음 할땐 막막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막막해지는 것이 극회 일인 듯 합니다. 다음번엔 캐스트를!

{연출}



13 김승현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처럼 저 역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단 그저 성적 올리기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가 가장 큰 목표였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 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의미 없는 발버둥에 지쳐 처음으로 속으로만 남몰래 간직해 왔던 제 꿈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즈음 송대극회에 들어와 '분장실'이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의 경험을 통해 얻은 꿈에 대한 확신과 아무 이유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열정을 품고 지금 저는 저의 그 첫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신입생 친구들과 동기, 선배 분들과 함께 만들어진 '낙오자를 위하여'. 많이 부족할지라도 이번 연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소개

어느 한 고등학교 연극반.

연극대회 출전을 앞둔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특별한 연극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때로는 부모님이 되며 좀더 깊이있게 스스로를 표현해 가는데..

연출의도

"낙오자" 낙오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다수가 정해놓은 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작품의 배경은 고등학교지만 어쩌면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 낙오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 C A S T }

13 이성미 지도교사



봄 사랑 벚꽃, 너♥

13 이현승 재깁



하고 싶은거 이번에 진짜 다~했다! 다른 것에 소홀했어도 힘들었어도 맨날 시간 뻘다고 연습하니까 됐지? 했지? 첫공연 올렸지!! 정신 빠짝 차려야지

14 이유진 나영



하얗게 불태웠다

14 장지훈 호성



생애 첫 연극. 힘들었지만 즐거움이 더 많았던

14 김세희 창숙모, 옥돌모



처음으로 진짜 원하는걸 이루다!!

14 최예솔 복채순, 소녀



떨림을 즐기기 위해 시작한 연극,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연을 일순위로 둔 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14 편무송 승우



오늘 재수할 때 생각한 대학가서 꼭 하고 싶은 일 하나를 한다!

14 김준형 옥돌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해보고 싶었던 연극. 숭실대학교에 들어와 어찌다보니 '송대극회' 라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연습이 빽빽기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연습을 하다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저는 걱정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공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14 심현우 연출



쓴 시간들은 지나갔고, 달콤한 순간들만 남았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의 결실인 무대를 즐겨주세요!

14 유새봄 숙희, 박선생, 채순모



처음으로 올리는 연극 '낙오자를 위하여!' 너무 떨리고 설레인다. 응원해준 아빠, 엄마, 친구들, 도움주신 선배님들 고맙고 감사해요♥ 꾸♥

카메오

11 김영근 의사



{Cast Interview}



13 이성미

Q. 낙오자를 위하여를 연습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또는 힘들었던 점은?

A. 늙어서 대사가 안 외워져요.(22살ㅋㅋ)

Q. 역할이 선생님이셨는데 진짜 꿈은?

A. 대통령. 나라를 바꾼다!



13 이현승

Q. 채순부를 연기하면서 힘든 점은?

A. 오히려 맞는 애들은 팬찮다는데 때리는 제가 힘들었어요.

Q. 평소에 술을 좋아하시나요?

A. 좋아합니다. 특히 막걸리에 파전이요!



14 김세희

Q. 1인 다역 연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A. 옥돌이 엄마. 제일 재미있었어요!!

Q. 연습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A. 연기를 다르게 했는데 티가 안났을때.



14 김준형

Q. 극 역할이 고등학생 역인데 연기하는데 힘드시진 않았나요?

A. 옥돌이가 눈치를 많이 보는데 실생활에서 눈치를 보게 되서 힘들었어요.

Q. 아들 역과 김준형과 다른 점은?

A. 옥돌이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데 저는 안 무서워해요.



14 심현우

Q. 극 안에 역할이 '연출'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낙오자를 위하여'는 무엇인가요?

A. 모두의 노력이 담긴 연극

Q. 공부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잘 하셨나요?

A. 물론이죠. 하하하.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수능을 잘 못봐 여길 왔네요. 잘 봤으면 여러분을 못봤을텐데.



14 유세봄

Q. 학생을 대변하는 선생님 역할이었습니다. 무슨 심정이었나요?

A. 학생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모습을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봤기 때문에 연극에서 대변할 수 있어서 좋았다.

Q. 영어발음이 좋던데 유학생이셨나요?

A. 유학생까지는 아니고 외국에 자주있었어요 ㅋㅋ



14 이유진

Q. 이유진의 실제 고3때는 어땠는지?

A. 고3을 학교에서 안보내서 추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

Q. 실제로 사투리를 쓰시나요?

A. 서울사람과 말할 땐 안쓰는데 고향친구들을 보면 많이 쓴다.



14 장지훈

Q.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A. "네, 3학년 4반 최승우, 같은반 유옥돌 맞습니까? 맞으면 대답을 해요" 처음으로 연습한 대사

Q. 호성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A. 조금 더 진지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14 최예슬

Q. 채순이의 역할을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A. 감정을 소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Q. 연기는 재밌나요?

A. 처음엔 감이 안잡혀서 힘들었지만 또다른 나를 경험하면서 재밌었다.



14 편무송

Q.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A. 승우가 좋아하는 연극을 하듯이 관객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Q. 만일 편무송이 아닌 승우로 살아가라면?

A. 시험지를 훔친 걸 후회하지 않을까... 퇴학을 당했기 때문에



{STAFF}



도움

- 09 이근희 김현우
- 10 김동환 김지영
- 12 김나연 김연교 박지민
- 13 권지원 김동욱

{PHOTO SKETCH}

	MON	TUE	WED	THU	FRI
6 PM					
7 PM					
8 PM					
9 PM					
10 PM					
11 PM					

{연보}

정기 공연

- 1921년 6월 13일
연흥소인극 〈절세영웅 나폴레옹의말료〉 〈대비극 노예의 탄〉
- 1923년 7월 7일, 21일
진원극 〈우의리행진〉 〈기계인간〉 〈동백꽃〉 〈십년후〉엠편청년회주관
- 1923년 7월 28~29일
〈소인연극〉 교학생후원회 주관
- ▼ 1965년 11월
 - 제1회 〈폐공으로 돌아오다〉 황석영 작, 이반 기획, 전진호 연출
 - 1968년 10월 28일
제2회 〈Our Town〉 Thorn Wild 작, 이태주 연출
- 1969년 10월 10일 / 10월 28~29일
제3회 〈의자들〉 E.이오네스코 작, 고틀본 연출
- 1969년 10월 28~29일
제4회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고틀본 연출
- 1970년 5월 15일
제5회 〈성자의생물〉 John Millington Synge 작, 한영재 연출
- ▼ 1970년 10월 28~29일
제6회 〈승부의 결말〉 사무엘 베케트 작, 김영기 연출
- 1971년 5월 26일 / 27일 / 28일 / 31일 / 6월 1~2일
제7회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작, 정중화 연출
- 제7회 〈건널목 산화〉 윤조병 작, 주정서 연출
- 제7회 〈담배해독에 대하여〉 안톤 체홉 작, 한영재 연출
- 제7회 〈황금단지〉 푸라우데스 작, 유근배 연출
- 제7회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작, 차현재 연출
- 1971년 11월 4~5일, 11일
제8회 〈저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 작, 차현재 연출
- ▼ 1972년 5월 25~27일
제9회 〈생일 파티〉 헤럴드 핀터 작, 한영재 연출
- 1973년 5월 21~23일
제10회 〈미시시피의 결혼〉 F.뮐렌마트 작, 고틀본 연출
- 1973년 10월 25~27일
제11회 〈밤〉 h.핀터 작, 〈기도〉(소극장) f.아라발 작, 김득남 기획, 차현재 연출
- 1974년 5월 25~27일
제12회 〈정의의 사람들〉 a.까뮈 작, 정중화 연출
- 1975년 6월 9~10일, 12~13일
제13회 〈싸움터의 산책〉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기획, 안홍순 연출
- ▼ 1975년 10월 29~31일
제14회 〈비더만과 방화범〉 맥스 프리시 작, 김기열 기획, 안홍순 연출
- 1976년 6월 1~3일
제15회 〈인턴뷰〉 장 클로드 반 이테리 작, 김기남 기획, 김득남 연출
- ▼ 1976년 10월 25~28일
제16회 〈뱀〉 장 클로드 반 이테리 작, 김영덕 연출
- 1977년 6월 15~18일
제17회 〈EQUUS〉 피터셰퍼 작, 백정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77년 10월 10~13일
제18회 〈EQUUS〉 피터셰퍼 작, 방영철 기획, 김영덕 연출
- 1978년 6월 5~6일
제19회 〈Counter point〉 Olov Hartman 작, 방영철 기획, 김영철 연출
- ▼ 1978년 10월 24일
제20회 〈EQUUS〉 피터셰퍼 작(대학연극축제참가) 민승기 기획, 김영덕 연출
- 1979년 6월 18~19일
제21회 〈한강 2979〉 김영덕 작, 정재호 기획, 이병국 연출
- 1979년 9월 29일, 10월 2일
제22회 〈조분〉 오태석 작, 이정원 기획, 황정순 연출
- 1980년 11월 5~6일
제23회 〈아니,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작, 엄세범 기획, 박양권 연출
- 1981년 6월 12~13일
제24회 〈노부인의 방문〉 F. 뮐렌마트 작, 이종규 기획, 황정순 연출
- ▼ 1981년 11월 12~14일
제25회 〈달맞이 꽃〉 김병중 작, 전석기 기획, 황정순 연출
- 1982년 5월 12~13일
제26회 〈카리콜라〉 A.까뮈 작, 음태웅 기획, 지 숙 연출
- 1982년 10월 7~8일
제27회 〈체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 작, 전희식 기획, 황정순 연출
- 1983년 6월 20~21일
제28회 〈미시시피의 결혼〉 F.뮐렌마트 작, 전희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83년 10월 7~8일
제29회 〈트레버〉 존 보웬 작, 이원우 기획, 오정열 연출
- ▼ 1984년 5월 24~26일
제30회 〈도가니〉 A. 밀러, 이종규 · 엄세범 기획, 오세환 연출
- 1984년 10월 11~13일
제31회 〈번진소〉 존 스톨텐버그 작, 차세훈 기획, 이용섭 연출
- 1985년 5월 9~11일
제32회 〈빈민굴〉 막심 고르키 작, 김상현 기획, 이용섭 연출

- 1985년 11월 21일, 23일
제33회 〈신부님 우리 신부님〉 조반니 과레스키 작, 하승민 기획, 송기범 연출
- 1986년 6월 4~6일
제34회 〈EQUUS〉 피터셰퍼 작, 허성무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9월 11~13일
제35회 〈코발스〉 E.이오네스코 작, 안상준 기획, 송기범 연출
- ▼ 1987년 6월 3~5일
제36회 〈한 여름 밤의 꿈〉 셰익스피어 작, 권형진 · 이준석 기획, 오정열 연출
- 1987년 9월 10~12일
제37회 〈오해〉 A.까뮈 작, 오정열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6월 2~4일
제38회 〈세 번은잠게 세 번은 길게〉 이어령 작, 이충일 기획, 오정열 연출
- 1988년 10월 6~8일
제39회 〈안내냐?뭇내냐!〉 다리오 포 작, 권태수 기획, 송근호 연출
- 1989년 5월 25~27일
제40회 〈농녀〉 윤조병 작, 천승범 기획, 안선후 연출
- ▼ 1989년 10월 10일 / 17~18일
제41회 〈대성당의 살인〉 T.S. ELIOT 작, 오정열 기획, 이 반 연출
- 1990년 5월 24~26일
제42회 〈안티고네〉 장 아누이 작, 권태수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8월 30~9월 1일
제43회 〈한씨연대기〉 황석영 작, 천승범 기획, 이영민 연출
- 1991년 9월 5~7일
제44회 〈생일파티〉 H.핀터 작, 남재우 기획, 권승혜 연출
- 1991년 9월 5~7일
제45회 〈날개〉 이상 작, 양현준 기획, 권형진 연출
- 1992년 3월 19~21일
제46회 〈우리 나뭇을 불었다〉 김상림 작, 김경호 · 정현웅 기획, 홍은영 연출
- ▼ 1992년 9월 17~19일
제47회 〈금관의 예수〉 김지하 작, 홍석환 기획, 송근호 연출
- 1993년 10월 21~23일
제48회 〈세일죽음조맹의 죽음〉 A.밀러 작, 황명식 기획, 박원상 연출
- 1993년 10월 21~23일
제49회 〈택시택시〉 김상수 작, 소장호 · 이명성 기획, 박원상 연출
- ▼ 1994년 5월 26~28일
제50회 〈굿 닥터〉 닐 사이먼 작, 정석용 기획, 소장호 연출
- 1994년 9월 29~10월 1일
제51회 〈안티코네〉 소포클레스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 1995년 5월 25~27일
제52회 〈상자속의여자〉 김윤미 작, 현승욱 기획, 류성환 연출
- 1995년 11월 26~28일
제53회 〈나이라임오펜지나무〉 바스크셀로스 작, 김은성 기획, 남재우 연출
- ▼ 1996년 3월 7~9일
제54회 〈자살〉 김현묵 작, 한석윤 기획, 손미라 연출
- 1996년 9월 5~7일
제55회 〈육방이라는 이름의 전자〉 테네시 윌리엄 작, 조태희 기획, 이충희 연출
- 1997년 3월 13~15일
제56회 〈우리 읍내〉 손튼 와일더 작, 신하영 기획, 서수경 연출
- 1997년 10월 8~9일 / 16일 / 17일
제57회 〈개교 100주년동문합동〉 〈대성당의 살인〉 T.S. ELIOT 작, 엄세범 기획, 정중화 연출
- 1998년 3월 18~20일
제58회 〈살인 놀이〉 이오네스코 작, 조태희 기획, 권내리, 이정미 연출
- 1998년 11월 26~28일
제59회 〈돌고기의축제〉 유미리 작, 윤장한 기획, 조태희 연출
- 1999년 3월 11~13일
제60회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이정원 작, 이운재 기획, 이경희 연출
- 1999년 9월 2~4일
제61회 〈세상 낚기〉 이정원 작, 이정원 연출
- 2000년 5월 4~6일
제62회 〈아름다운 시인〉 장진 작, 이운재 기획, 이경희 연출
- ▼ 2000년 8월 31~9월 1~2일
제63회 〈소나기〉 황순원 작, 김귀하 기획, 박정국 연출
- 2001년 3월 29~31일
제64회 〈인간에 대한 예의〉 서정훈 작, 이욱재 기획, 서정훈 연출
- 2001년 9월 6~8일
제65회 〈바라보다 닳아가다〉 김희진 작, 서정우 기획, 김희진 연출
- 2002년 3월 13~15일
제66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작, 김영덕 기획, 김명진 연출
- 2003년 9월 4~6일
제68회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사무엘 베케트 작, 김성은 기획, 최연경 연출
- 2004년 6월 3~5일
제69회 〈평화씨〉 아리스토파네스 작, 김성은 기획, 강해정 연출
- 2005년 3월 2~4일
제70회 〈마술가게〉 이상범 작, 김성은 기획, 이욱재 연출

정기 공연

- 2005년 10월 6~8일
제71회 〈허바쿠사〉 홍가이 작, 정한길 기획, 한재진 연출
- 2006년 6월 1~3일
제72회 〈정흔예찬〉 박근영 작, 이고운 기획, 이욱재 연출
- 2006년 9월 21~23일
제73회 〈사랑에 관한 일곱가지 소묘〉 위성신 작, 김병현 기획, 김승태 연출
- ▼ 2007년 5월 31~6월 1~2일
제74회 〈굿 닥터〉 닐 사이먼 작, 신영준 기획, 한재진 연출
- 2007년 9월 6~8일
제75회 〈개교 110주년동문합동〉 〈천년제국 1623년〉 차근호 작, 이준석 · 권형진 · 양현준 · 이명성 · 윤대현 기획, 박경근 연출
- 2008년 11월 27~29일
제76회 〈Open Couple〉 다리오 포 작, 이보라 기획, 김영희 연출
- 2010년 11월 18~20일
제77회 〈일요일의 불청객〉 이근삼 작, 김현우 기획, 서동현 연출
- 2011년 5월 26~27일
제78회 〈같이, 미처다〉 닐 사이먼, 서현철, 안톤 체홉 작, 김상현 기획, 김진욱 연출
- ▼ 2011년 11월 24~26일
제79회 〈신축 학생회관 개관 기념공연〉 〈술된 돌아오지 않는 햄릿〉 위성신 작, 이준석 · 소장호 · 이명성 · 양영호 · 이현웅 · 홍창고 기획, 위성신 연출
- 2012년 5월 31~6월 2일
제80회 〈카드에 없는 카드〉 이경문 작, 임윤진 · 조운재 기획, 이경문 연출
- 2012년 12월 6~8일
제81회 〈소팔로비치 유랑극단〉 류보미 시모비치 작, 최환나 · 윤예술 기획, 정성원 연출
- 2013년 5월 23~25일
제82회 〈분장실〉 시미즈 쿠니오 작, 호혜인 기획, 김지영 연출
- ▼ 2013년 10월 15~19일
제83회 〈운전배우기〉 플라 보글 작, 윤미나 · 김동욱 · 고세이 기획, 정성원 연출
- 2014년 5월 29~31일
제84회 〈낙오자를 위하여〉 김현욱 작, 오광규 · 김서우 기획, 김승현 연출

채플 공연

- 1985년 9월
제1회 〈예언자와 묵수〉, 엄세범 기획, 이용섭 연출
- 1986년 10월
제2회 〈20세기의 그리스도〉, 음태웅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10월
제3회 〈공포를 넘어서〉, 이영민 기획, 이준석 연출
- ▼ 1996년 5월
제4회 〈공포를 넘어서〉, 이명성 기획, 남재우 연출
- 2006년 10월
제5회 〈사랑에 관한 다섯가지 소묘〉 위성신 작, 김병현 기획, 김승태 연출
- 2007년 10월 22~25일
제6회 〈칼멘의고백〉 김중철 작, 박용혁 기획, 이욱재 연출
- 2008년 9월 28~10월 2일
제7회 〈결혼〉 이강백 작, 장한샘 기획, 김성훈 연출
- 2009년 9월 28~10월 1일
제8회 〈해파이스토스의 춤〉 정다운 작, 정한길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10월 25~28일
제9회 〈다섯번째 자살〉 김수형 작, 이호림 기획, 유병기 연출
- 2012년 10월 29~11월 1일
제10회 〈도덕적 도둑〉 다리오 포 작, 원준진 기획, 오광규 연출

워크샵 공연

- 1991년 10월 7일
(왕) 이준석 작, 남재우 기획, 이준석 연출
- 2010년 6월 5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작, 〈가솔소녀 우주여행기〉 김지용 작, 유병기 기획, 김윤배, 서동현, 김진욱 연출
- 2013년 11월 29일
(서툰 사람들) 장진 작, 최상원 · 박희진 연출
(에쿠우스) 피터 셰퍼 작, 김동현 연출

송대극회
Since 1921
1921년~1923년
평양 송실대학교

신입생 환영 공연

- 1975년 3월 10~12일
제1회 〈악마와 톨〉 W. 에이먼 작, 김홍수 연출
- 1976년 10월 29~31일
제2회 〈보석과 연인〉 이강백 작, 김득남 연출
- 1977년 3월 16~18일
제3회 〈출발〉 윤대상 작, 전경호 기획, 안홍순 연출
- ▼ 1979년 3월 29~30일
제4회 〈셋〉 이강백 작, 한철 기획, 정재호 연출
- 1981년 3월 30~31일
제5회 〈아리아 다 카포〉 E.ST.MILLAY 작, 이영환 기획, 오세환 연출
- 1982년 3월 24~25일
제6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작, 최시영 기획, 이용섭 연출
- 1983년 4월 16
제7회 〈블랙 코미디〉 블랙 셰퍼 작, 전희식 기획, 홍려석 연출
- 1984년 3월 8~9일
제8회 〈개인의 소공관〉 호랄도 작, 차세훈 기획, 김민보 연출
- 1985년 7월 20일
제9회 〈아리아 다 카포〉 E.ST.MILLAY 작, 이영민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3월 17~19일
제10회 〈인형의 집〉 헨리 입센 작, 이길영 기획, 김정은 · 위성신 연출
- 1987년 3월 12~14일
제11회 〈더러운 손〉 사르트르 작, 백윤형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3월 24~26일
제12회 〈불가불가〉 이현화 작, 천승범 기획, 황금실 연출
- 1989년 3월 23~25일
제13회 〈속인 수녀를 위한 친족곡〉 까뮈 작, 홍덕태 기획, 박경근 연출
- 1990년 3월 8~10일
제14회 〈우울증 환자〉 보트스트로우 작, 이영민 · 안상준 기획, 박혜숙 · 백로라 연출
- ▼ 1991년 3월 7~9일
제15회 〈노크노크〉 줄스파이터 작, 정현웅 기획, 이병준 연출
- 1992년 5월 28~30일
제16회 〈꿈 먹고 물 마시고〉 이근삼 작, 김상경 기획, 양현준 연출
- 1993년 3월 11~13일
제17회 〈메두사〉 조지 케이저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1994년 3월 10~12일
제18회 〈어린이왕자〉 생텍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홍석환 연출
- 1995년 3월 9~11일
제19회 〈롬 놀〉 이강백 작, 양영호 기획, 정석용 연출
- ▼ 1996년 5월 30~6월 1일
제20회 〈올더와 뱃고동아〉 승진기 작, 정재훈 기획, 김형근 연출
- 1997년 5월 29~31일
제21회 〈로물루스 대제〉 뉘넬마크 작, 박정국 기획, 정석용 연출
- 1998년 6월 5~7일
제22회 〈결혼〉 이강백 작, 강길호 · 안병진 기획, 류민주 연출
- 1999년 6월 3~5일
제23회 〈자매〉 라투아니아 작, 홍신태 기획, 권내리 연출
- 2000년 11월 16~18일
제24회 〈도덕적 도둑〉 다리오포 작, 김명진 기획, 강길호 연출
- 2001년 5월 30~6월 1일
제25회 〈노부인의 방문〉 뉘넬마크 작, 강해정 기획, 서정우 연출
- ▼ 2003년 5월 29~31일
제26회 〈텍스트리뷰〉 장진 작, 김종백 기획, 한주영 연출
- 2008년 6월 4~7일
제27회 〈한여름밤의 꿈〉 셰익스피어 작, 박한경 기획, 이원진 연출
- 2009년 5월 28~30일
제28회 〈미미의 집〉 정다운 작, 정성원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3월 18~20일
제29회 〈웃음의 대역〉 미타니 코우키 작, 서동현 기획, 정현순 연출

2015년
송대극회 창단 50주년

50th
2015
in Seoul

1965년 11월
서울 송실대학교 송대극회 창단 공연
〈폐공으로 돌아오다〉 소설가 황석영 작,
송실대학교 명예교수 이반 기획, 전진호 연출

{스폰}



뿌리: 티켓 지참시 모든 음료 1000원 할인(6/30까지)



주모리: 깨끗하고 맛있는 호프집

	*main menu		*sub menu	
	감자 고로케	1000	치킨 남방스케	6900
	야채 고로케	1300	현기씨 샐러드	7900
	바바 고로케	1500	믹스 피클	700
	치즈 고로케	1600	*bererage	
	카레 고로케	1800	생맥주	2000
	민츠 카츠	1800	더치맥주	3000
			아메리카노	1000
			음료	2000

바바고로케: 맛있는 요리와 맥주가 공존하는 곳



도스마스: 만원 이상 주문시 배달 가능



